

감동의 '2022 만민하계수련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했던 만민하계수련회는 변화와 응답, 치료의 역사뿐 아니라 큰 기쁨과 감동으로 총만했다.

'선' 시리즈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정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감동할 수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주 안에서 만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교육과 은사 집회, 캠프파이어, 각 선교회 행사를 통해 성도들은 더욱 행복했다.

국내외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받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GCN방송, 유튜브 등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여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만민뉴스

제974호 2022년 8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행복했습니다!”

2022 하계수련회, 주제 :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



지난 8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이라는 주제로 '2022 만민하계수련회'가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수련회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몽골어, 인도의 힌디어, 타밀어, 오디아어, 보즈푸르어,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필리핀의 세부아노어, 미얀마의 버마어 외에도 수어로 동시통역 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GCN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태풍 트라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찜통더위가 예보되었으나, 수련회 일정에 지장 없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기운과 날씨로 역사해 주셨다.

첫째 날 도착 예배 후, 저녁 '교육' 시 강

사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 ; 요 11:39~44)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수진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전제한 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이 전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므로 참믿음과 사랑을 소유해 영육 간에 불가능이 없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육 후에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은사 집회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과 예

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는 미리 환자 접수한 성도들에게 직접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파킨슨병, 뇌졸중, 백신 후유증, 허리디스크, 교통사고 후유증, 척추측만증, 피부염, 퇴행성관절염, 화상, 백내장 등이 치료되고 시력, 청력이 회복되는 등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던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케냐에서 수련회에 참여한 니콜라스 마로아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호흡도 어려웠는데, 기도 받은 후 치료받았다고 간증했다. 인도에서 참여한 성도들도 뇌출혈 후유증, 의식 불명, 갈비뼈 골절, 치질, 방광염, 중이염, 각종 통증 등을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전해왔다.

이 외에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미국 등에서도 실시간으

로 간증을 전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둘째 날 '캠프파이어'는 강사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코러스, 워십, 밴드 팀들이 함께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1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이어 가나안선교회 'Happy song' 특송과 교역자회 '만민'과 앙코르곡 '주만 따르리' 특송은 성도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만민과 함께하시고 보장하시는 은혜와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행복했던 '2022 만민하계수련회', 이후로도 만민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영광과 축복의 그날을 그리며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뤄갈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엘리아의 선(善)_2

“저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누가복음 1:17)

엘리아는 본래부터 심히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없어서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습니 다. 육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중심을 보 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를 택 해 구약시대의 큰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연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해진 엘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냄으로 우상숭배 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처럼 엘리아 선지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엘리아는 요단강에서 산 채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왕하 2:11).

과연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아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성경 곳곳에는 엘리아가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으 로 왔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천국에 서 큰 자라 인정받은 선은 무엇일까요?

1.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자극히 사랑하는 마음

엘리아는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룰 때 늘 하나님과 교통 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 노력했지요. 유약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심으로 엘리아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지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엘리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약한 자신에게 큰 권능을 입혀 강하게 하시 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명 하시면 순종함으로 이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도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육적인 사랑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마음과 행함이 변합니다. 자신이 해 준 만큼 상대에게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엘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을 이룰 때 어려운 일 앞에서는 자신의 성품 때문 에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중심에서 주님을 믿고 진 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대로(막 9:23)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사람의 성품은 상 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 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 오십인과 아 세라의 선지자 사백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했습니다. 심히 유약한 성품이었던 엘리아가 바 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에게 불의 응답 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제안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에 빠진 백성을 어찌하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 담대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밝히 깨닫고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인 아버지의 믿음에 이르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우침으로 무척 사모했는데, 마침내 산 채로 들림 받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친히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더 밝히 깨닫고 정립했을 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 지요.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주를 향한 사 모함이 불붙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를 위해 무엇 이든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엘리아에게 주의 길 을 예비하는 큰 사명을 주셨지요. 바로 산 채로 들림 받아 하나님 곁에 있던 엘리아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주 를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2.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한 선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 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까지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 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6절에는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 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지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 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태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오직 엘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리바람을 타고 산 채로 승천한 엘리아는 어 떻게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잉태된 지 6개월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잉 태될 때 그에게 보내 주시는 영 안에 엘리아의 마음을 담 아 주셨지요. 바로 엘리아의 영 자체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아의 마음이 담긴 영’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 태되셨기에 육의 부모의 기를 전혀 받지 않으셨으며, 잉 태됨과 동시에 주어진 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과 달리 육의 부모의 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잉태한 태아에게 엘리아 의 마음이 담긴 영을 보내 주셨지요(눅 1:5-38).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성경에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 제자들이 있지만 유독 세례 요한에 대해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요 1:6)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저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 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 비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 천사 장 가브리엘이 그의 아버가 될 제사장 사가라에게 나타 나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일러준 내용입니다.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able>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이재록 목사의 성경 인물 시리즈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누가복음 3장 4~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곧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확인해 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홀연히 변화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답변하시지요(마 17:10~12). 이어지는 13절에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산 채로 들림 받은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살아 보았고, 천국의 영광 또한 누리고 있었기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장차 겪으실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 조금도 꺼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엘리야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선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처음 주님을 만나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나의 전부는 주님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대로 행함으로 진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지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 하지요. 또한 전부를 달라고 하심도 아니고, 축복 주시기 위해 온전한 심일조를 내라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도 어렵고 힘든 일에 스스로 앞장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해 모든 말과 행함에서 그 사랑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신의 성품이나 환경을 핑계 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되고 어찌하든 그 뜻을 이뤄 드리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사랑과 행함을 통해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성품이나 환경을 핑계 댈 수 없음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엘리야 시대와 달리 성령 시대이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방아쇠 수지와 손목터널증후군을 치료받았어요”



이연수 집사
(55세, 2대대 14교구)

저는 일하거나 컴퓨터를 하고 나면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접힌 채 퍼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퍼려 해도 굳은 것처럼 퍼지지 않았고 간신히 퍼도 다시 접혔지요. 병원 진찰 결과, 방아쇠 수지와 손목터널증후군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때마침 코로나 방역 지침이 풀리면서 분당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요, 더욱이 헌금위원까지 하게 되어 매우 감사했지요. 이 사명이 소중하게 느껴져 마음 다해 감당했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 또한 정성껏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육 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기도 해 주시기 전, 성령 충만한 찬양할 때 손을 폈는데 제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쪽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지요.

이뿐 아니라 발 시림이 심해 조금만 찬 기운이 느껴지면 발이 시리고 통증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기도 받은 뒤로는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불어와도 시림이 전혀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전혀 못하던 아들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계속 소리를 만드네요”



위니카이 성도
(30세,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제 아들 링컨(3세)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담임 정명호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후 아들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녹화영상을 통해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첫날 교육 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 기도를 해 주실 때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놀랍게도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계속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습니다”

“산후풍을 치료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라즈니시 성도
(40세, 인도 델리 만민교회)



박영남 권사
(62세, 2대대 12교구)



벌어르마 집사
(58세, 몽골 만민교회)



2년 전, 집을 건축하면서 무리하게 일한 탓인지 이후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이내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지요. 4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더 심해졌고, 다리 감각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의사는 척추관이 협착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리 감각도 무뎠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앉거나 일어서기가 힘들었고 허리를 구부릴 수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지요.

만민하계수련회 때 반드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고, 회개하였더니 치료받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유튜브로 참석한 수련회 교육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는 앉고 일어서도, 허리를 구부려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년 전부터 산후풍으로 인한 고통으로 뼈가 시리고 아렸습니다. 식은땀도 많이 났고, 몸이 차가워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했으며, 잠도 잘 자지 못했지요.

이번 만민하계수련회 때 치료받고자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버릴 힘이 와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꿈속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권사님, 간증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치료받을 것을 확신했지요.

사모함으로 참석한 만큼 만민하계수련회 첫 시간부터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교육 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전체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기도 받은 뒤에는 모든 증상이 싹 사라졌지요. 지금은 몸이 날아갈 것같이 가볍습니다.

2010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스러워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치료받아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이번에 만민하계수련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한국에 직접 가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질병도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 준비하였고, 마침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수련회 은사 집회 시 기도 받을 때까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머리부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순간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